

저는 세상에서 담배 냄새가 제일 싫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좁은 학회실에서 담배 냄새를 맡게 되면 코가 아파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한번 쬔은 그러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담배가 싫습니다. 하지만 제가 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를 생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담배냄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연구역이라고 확실하게 쓰여진 곳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도서관도 금연 구역인데, 많은 사람(특히 남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웁니다. 때문에 도서관 전체가 담배 냄새로 가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사람의 자유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생각하는 것 위에서 자신의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